

2000년 문제의 대응전략

2000년 문제는 컴퓨터를 쓰기 시작한 50년동안 가장 큰 위기중의 하나이다. 문제 자체는 별게 아니지만,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인력의 문제이다. 이 세가지만 충분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김 효 석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2000년 문제는 컴퓨터를 쓰기 시작한 50년동안 가장 큰 위기중의 하나이다. 문제 자체는 별게 아니지만,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인력의 문제이다. 이 세가지만 충분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마쳐야 할 시간이 정해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비용과 인력도 시간만 충분하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2천년까지 끝내지 않으면 이때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것이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문제의 성격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데드라인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한 20개월이고 1년동안은 테스트하고 검증할 기회가 필요하다. 적어도 1년정도는 잡아야 한다. 물론 회사의 업종이라든지 규모나 성격, 플랫폼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한 1년정도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99년초에는 테스트를 들어가야 한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간이 앞으로 18개월밖에 남아있지 않다. 18개월내에 과거의 10년 이상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메인テナンス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요소가 영향을 받는다. 하드웨어, OS시스템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유틸리티 등 전체 플랫폼 자체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단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유지·보수 메인テナンス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여기서 어려운 점은 규모나 범위산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코딩 스텝중에서 몇 %가 해당되는지는 일일이 소스코드로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봐야 할 것이 어느정도인지를 가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어려운 점이다.

규모나 특히 비용이 문제이다. 소스코드가 있는 것도 문제인데 소스코드가 없는 것도 있다. 없는 경우는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다시 재코딩해야 할 것이다. 다시 코딩작업을 해서 고쳐야 하기 때문에 범위는 어떻게 할지 비용은 얼마가 들것인지, 규모가 크면 클수록 비용이 올라간다. 비용산정과 규모와 범위산정이 어렵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비즈니스의 문제이다. 이 시스템의 프로젝트를 실패하면 기업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올 것이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 차원의 문제이다. 그래야지만 최고 경영층이 이 문제에 관

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툴이 도움을 줄수 있지만 툴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리고 기업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회사 내부의 데이터나 프로그램만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시스템들이 ISO쪽의 시스템으로 기업간의 연계시스템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우리회사와 공급업체와 협력업체, 거래처 등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주기때문에 우리 기업만이 해결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데이터중에서 상당한 부분은 외부에서 날라오는 것이 있다.

이처럼 자신만이 해결되었다고 완전히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난이도는 낮지만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로서 이런 쪽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시스템의 성격으로 프로그램을 볼때도 독립시스템의 경우에는 파급효과도 크지 않고 난이도도 그다지 높지 않다. 점차 단일기업의 연계시스템이라든지 ERP 라든지 기업간의 연계시스템, EDI 이런 것을 쓰게 되면 문제는 더 복잡하게 된다.

더군다나 CALS 등이 국가간에 확산되었을 때는 영향이 훨씬 크게 되고 어려워진다. 이럴때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성격에 따라서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기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느냐 하면 첫째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CEO는 물론이고 CIO, 그리고 다른 사업부문의 책임자들, 이 세사람이 다 문제가 있다. 이 모든 것은 전산실 책임자의 문제는 아니다. 최고경영자(CEO)와 다른 사업부문의 중역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흔히 범위를 응용프로그램의 날짜관련 부분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잘못인식하고 있는 것

이 문제를 훨씬 심각하게 한다. 두 번째 이유는 Last Minute Syndrome이다. 이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서 한꺼번에 몰아서 하려는 마음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용과 인력의 문제가 심각해진다.

마지막 순간의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은 비용이 상승하고, 인력 스카웃이 있다. 미 연방의회와 컴퓨터 2000년 위기 문제 특별공청회에서 이 인력스카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비용이나 기술로 계산할 수 없는 특수한 난제가 있다.”고 했다.

이 말은 마지막까지 가서 인력스카웃이 문제가 되면, 대기업은 자금이 넉넉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쓸 수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은 자금이 부족하여 상당히 어려워 질것이라는 것이다.

2000년에 대한 대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성공률이 높고 늦추면 늦출수록 어려워 진다는 것이다.

2000년 문제 해결의 추진단계로는 맨처음으로 사전조사를 하는 것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경영층의 인식을 높이고, 다른 부서간의 문제의 인식을 확대하는 것과 표준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조사분석 및 전략수립으로 영향평가를 하는 것이다. 과연 2000년문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향평가를 해서 핵심 대상프로세스가 어느어느 것이 걸리는가가 이런 우선 순위는 어떤 것이 걸리는가, 그리고 그에 따른 기본 계획을 세우는 단계, 거기에 따른 소스코드도 조사하고 지금 우리의 비용과 인력자원은 어떤 상황인지 조사하고 시범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로 하고 비용을 어느정도 할것인지 그 규모를 산정해서 일정을 수립해서 최고 경영층과 다른 책임 중역들과 협의를 해서 만든 단계이다. 전체적으로 영향을 분석하고 스케치하는 단계이다.

이게 끝나면 수정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프로그램이라든지 플랫폼자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하는 것을 실제 설계를 하고 프로그래밍을 고치는 작업을 한다. 패키지같은 경우는 랜더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고 분실된 소스코드를 복구를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틀이 있으면 그 틀을 써서 도움을 받는 방법, 수정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것인지 결정을 해야한다. 연도표기 문제는 일반적으로 네가지 정도의 솔루션이 나와 있다. 익스펜션 하는 방법, 네자리로 늘리는 방법, 그리고 슬라이딩 스케일, 윈도우 기법이다. 요즘 변호사업계에서도 2000년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2000년문제로 많은 소송이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 CEO(Chief Executives Officer)이고, CIO(Chief Information Officer)로 전산담당 책임자, 중역이라는 말을 쓴다. 그 사이에 각부서의 부서장(Business Executives)가 있다. 각 사업부문의 중역들이 있다. 과거의 정보시스템 부문의 모든 책임을 CIO가 가지고 있었다 거의 독점을 하고 있었다.

정보기술자체가 기업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할 때는 CIO가 모든 IT에 관한 것을 독점하고 있었다. 정보기술의 기능이 정보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지원수단이 아닌 경쟁의 무기로 쓰기 시작했다. 기업자체를 개혁하고 혁신하고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엔진으로 쓰고 있다.

과거에는 IT를 율이라는 마차의 수레라는 의미로 썼으나 현재에는 엔진이다. 과거에는 기업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전산부서가 CEO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넘겨도 별문제가 없었지만 현재는 성격이 바뀌었다.

이럼에 따라서 IT에 관한 책임도 CIO에서 CEO로 그리고 사업부문 중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CEO

가 과거에는 당시 CIO에게 모든 걸 맡겼는데 매년 IT에 대한 투자가 매년 15%씩 늘어가고 있다. 인건비를 빼놓고는 IT에 대한 투자가 가장 비중이 큰 업종이다.

기업에서 이렇게 IT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는데 CEO가 CIO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중역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CEO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같은 경우에는 2000년문제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다. IT에서 2000년문제가 실패했을 경우 주는 영향은 엄청나다. 이것은 CIO의 책임만이 아니다. CEO가 챙겨야 한다. CIO를 불러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책임을 CEO가 져야 한다.

사업부문 중역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대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SI업체가 있는데 각사가 이 SI업체들에게 IT에 관해서는 업체들에게 일임을 해왔다. 장사만 하겠다하는 태도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IT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미국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15개를 보면 그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는 각부서의 부서장들이 내놓은 것이다. 이 부서장들이 CIO로 승진하게 된다. 우리가 IT수준을 높이려면 이런 사람들이 추진하는 그런 단계로 바뀌어야 된다. 모든 것을 전산실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것으로 기대해선 안된다. 그래서 2000년문제에 대해서도 각부서의 부서장들의 몫이 크다. 결국은 각 프로젝트의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과 데이터 자원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하는 부분도 모두 이들이 할 일이다.

이 모든 문제는 CIO, CEO, 사업부문 중역과 같이 공유해야 한다.

이밖에도 전국적인 인식확산과 범정부차원의 지원 및 추진과정의 모니터링, 국가적인 차원의 인력조달 방안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자세 또한 필요하다. ◆